

# 반백의 노학자가 지닌 ‘진리찾기’의 꿈

## 《이성은 죽지 않았다》 펴낸 박이문 교수

박이문 교수(67, 포항공대 철학과)의 ‘꿈’은 위대한 시인이자 사상가가 되는 것이다. 반백을 이고 사는 노학자에게 아직도 ‘꿈’은 살아있다. 그 꿈 덕분에 요사이도 18세 소년처럼 세상을 널리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늘 여정을 꾸리고픈 유혹을 받으며, 아름다운 것들에 감동받는다.

### “이성이여 쫓기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싶은 지적 호기심은 그의 삶 전체를 설레게하고 충동하는 유일한 욕심이다. 그의 진리에 대한 탐구심은 마치 불가의 구도승을 방불케 한다.

50년에 가까운 ‘진리찾기’를 통해 박교수가 거둬들인 사상은 어떤 것일까. 최근 박교수가 펴낸 《이성은 죽지 않았다》(당대)는 철학, 예술, 과학, 역사, 인생관 등 다방면에 걸친 그의 사상의 정수들을 집약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 책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세기말의 사상적 혼란은 곧 ‘이성의 시련’이라고 파악한다.

“최근의 사상적 혼란은 마치 배 한척이 큰 폭풍우에 휩쓸려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헤쳐가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인데 해체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는 모든 것이 방법일 수 있고 아무런 방법도 없다고도 하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인류의 역사나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비판적 능력, 반성적 사유인 이성이야말로 그 선택의 잣대입니다.”

이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박교수는 “현재 많은 무정부적, 반이성주의자들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공격받고 있는 ‘이성’의 복구와 옹호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이성은 자신의 잠, 아니면 병상, 아니면 무덤에서 깨어나 새삼 쫓기해야 한다”고 웅변한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비판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지 인간중심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다른 존재의 우위에 두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야말로 인류가 처한 현재와 같은 문명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박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박이문 교수.

**“최근의 사상적 혼란은 마치 배 한척이 폭풍우에 휩쓸린 상황과 같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해체주의나 무정부주의는 우리를 더욱 혼란에 빠뜨립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이성이야말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잣대입니다.”**

대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박교수가 제시하는 것이 생태학적 세계관이다.

“요사이 많이들 사용하는 ‘환경’이라는 말도 사실은 인간중심적 표현입니다. 생태학적 세계관은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사고입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서양종교와 기계적인 세계관 같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낀다는 박교수는 세계는 모든 것이 고리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끼치는 유기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은 자연, 지구, 우주의 주인은 아니지만 운명에 책임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계적이고 이원론적인 과학의 세계보다는 유기적이고 포괄적인 예술의 세계에 기질적으로 가깝다고 말하는 박교수는 ‘하이테크아트’는 정말 예술인가’는 글을 통해 예술관을 피력한다.

박교수는 “예술과 기술을 구분지을 수 있

는 절대적인 잣대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예술을 담는 형식의 파괴가 진행되도 ‘신문기사’를 ‘시’로 보지는 않는다”며 ‘예술’은 고유의 양상을 지님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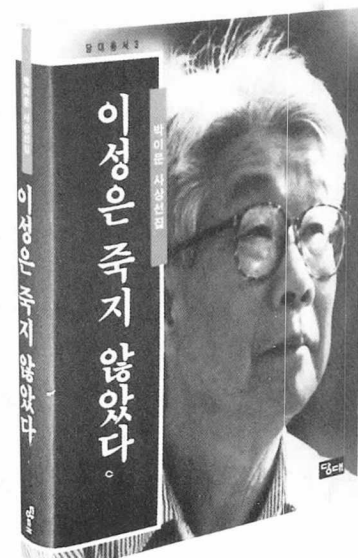
예술이야말로 사실을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박교수의 생각. 그때문인지 박교수는 일찌감치 예술의 세계에 탐닉해 시인, 문학가로서의 꿈을 키웠고 불문학을 전공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서울대 불문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당시로서는 연기가 힘들던 이화여대 교수자리를 얻어 안착하는가 싶었던 박교수는 61년 프랑스로 훌쩍 유학을 떠났다. “인생은 짧은데 나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가 떠남의 이유. 그것은 일종의 ‘출가’였다. 이후로 프랑스에서 불문학 박사학, 미국에서 철학박사를 받았고 그곳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며 30년을 보냈다.

### 광범위한 철학적 관심

“나는 교수나 학자가 되고 싶어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철학적 방법은 현상학도 아니며 분석철학도 아닙니다. 나는 칸트나 플라톤, 비트겐슈타인이나 하이데거, 데리다 등 그 어떤 철학자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철학적 문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박교수의 철학적 관심은 언어적, 개념적,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우주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



아내는 실존적인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의 사유는 머물거나 고착됨 없이 동서와 고금을 넘나든다.

‘전통과 근대성’ ‘예술과 과학’ ‘외국문학의 수용’ ‘과학과 이데올로기’ ‘역사의 선택과 이성’ 등 최근 큰 쟁점으로 부각되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막힘이 없이 자신의 철학을 펼쳐 놓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글을 쓰면서 머릿속의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박교수는 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저서가 많다. 《과학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전후》 《우리시대의 얼굴》 《문학과 철학》 《문명의 위기와 문화적 전환》 《이성은 죽지 않았다》 등 아울러 나온 6권을 합해 30권을 넘어서는 저서와 수많은 글들, 그리고 《나비의 꿈》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 등 4권의 시집도 있다.

앞으로도 《논어》에 대한 재해석과 ‘이성’, ‘세계관’의 문제에 대한 정리, 그리고 모든 철학적인 문제를 압축한 ‘철학개론’ 집필 등 하고 싶은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의 바탕은 모두 그가 50년 ‘진리찾기’를 통해 획득한 ‘박이문식’ 방법론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적 풍토가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하고 학문을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박교수는 지난 80년, 나이 50에 만난 13살 연하의 아내와 사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꿀’같다.

—박남정 기자